



홍명보號 11월이 '고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21일 2012년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1차전에서 2-0으로 오만을 꺾고 올림픽 7연속 진출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관문을 잘 통과했다.

대표팀은 2개월 후인 11월23일 카타르와 2차전 원정경기를 하고, 11월27일 사우디아라비아를 홈으로 불러들여 3차전을 치러야 한다. 중동 국가와의 방문 경기는 기후가 다르고 홈 텃세까지 기승을 부리는 까닭에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표팀은 1차전에서 승리했지만 느린 공수 전환과 공격진의 파괴력 부족, 수비 불안 등 보완할 점도 적지 않게 드러났다.

하지만 더 큰 숙제가 대표팀 앞에 놓여 있다.

유럽과 선수 차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힘겹게 조련해온 차선 진용을 대폭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에 출전하는 조광래 감독의 월드컵 대표팀은 11월 11일과 15일 각각 아랍에미리트, 레바논과 원정경기를 치른다. 경기일이 정확하게 겹쳐지는 않지만 비슷한 시기여서 양쪽

런던올림픽 최종 예선
오만에 2-0 승리
첫 단추는 잘 꿰지만

⋮

11월 카타르·사우디전
해외파 선수차출 불투명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

에 동원되는 선수들은 컨디션 난조를 겪을 우려가 크다.

현재 윤빛가람(경남)·홍철(성남)·홍정호(제주)·조영철(알비렉스 니가타)·김보경(세레소 오사카) 등은 성인 대표팀과 23세 이하 올림픽 팀을 오가며 뛰고 있다.

실상가상으로 올림픽대표팀은 이들 선수의 컨디션이 좋고 나쁨을 떠나 일부 선수를 아예 소집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일본과 국내 프로축구 리그가 막바지로 치닫는 시기여서 해당 구단들이 선수를 내줄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올림픽 팀에는 배천석(빛셀 고베)·김보경·한국영(쇼난 벨마레)·정우영(교토상가)·조영철·김민우(사간도스) 등 일본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많다.

홍명보 감독은 "성인 대표팀에 포함되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일본 리그가 중요한 시점이라서 소속팀에서 보내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주전들이 대거 교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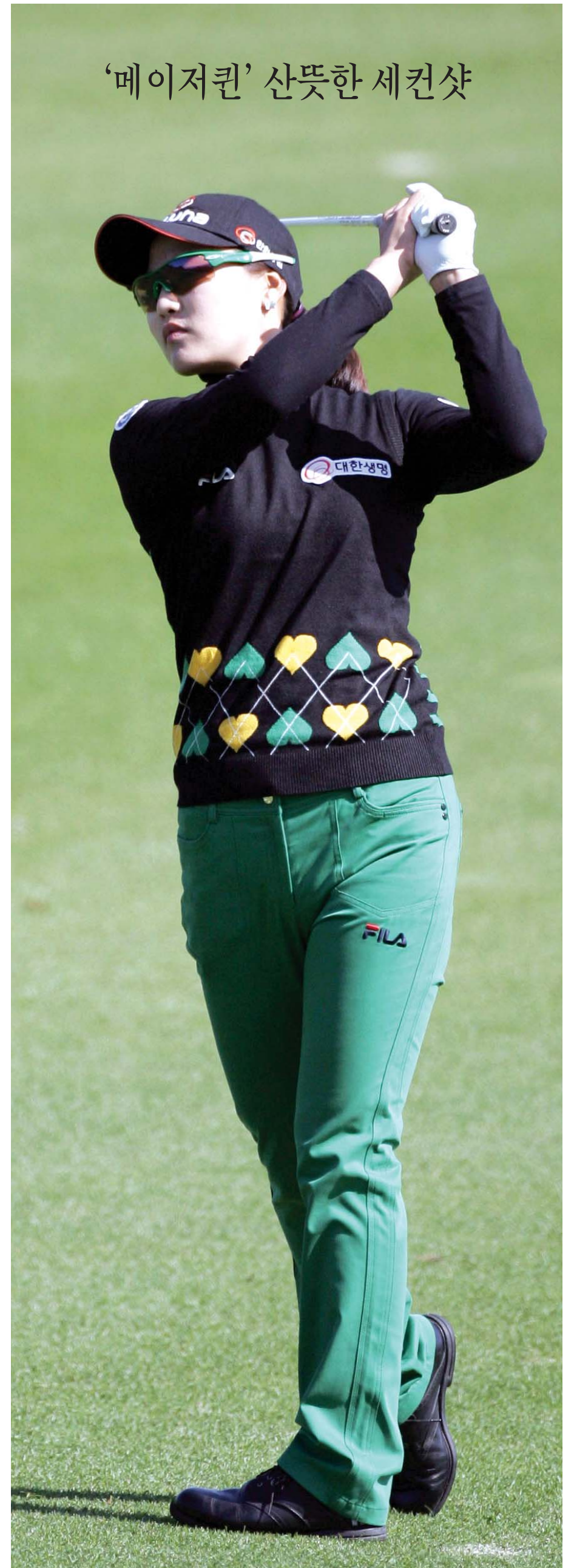
김보경이나 조영철 같은 핵심 선수를 차질 없이 데려오려면 일본 구단들과 긴밀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수준의 대책만 있다는 얘기다.

이런 환경을 고려하면 한국 축구가 올림픽에 7회 연속 진출하기 위해 넘어야 할 최대 고비는 11월 열리는 2,3차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메이저퀸' 산뜻한 세컨샷



22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트론CC에서 열린 메트라이프 한국경제 KPGA 챔피언십 1R에서 유소연이 3번홀에서 세컨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주앙 파울로 연승을 부탁해"

25일 K리그 26라운드, 안방서 부산 상대 설욕전

전남은 성남戰 6강 굳히기

무승 사슬을 끊은 광주 FC가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설욕전에 나선다.

광주(12위·승점 27점)는 25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6위 부산(39점)과의 K리그 26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지난 4월 리그컵과 5월 정규리그 경기에서 이어서 올 시즌 세 번째 맞대결, 광주는 앞선 두 차례 부산 원정길에서 1무1패를 기록하고 돌아왔다.

광광한 경기를 펼치고도 홈팀의 기세에 눌리며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광주는 안방에서의 대결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홈에서 승률이 높은데다 지난 25라운드 성남과의 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두며 7경기 만에 승리의 기쁨을 누린 만큼 부산전을 앞둔 광주 선수들의 자기가 남다르다.

'빛고를 trio' 박기동·김동섭·주앙파울로와 함께 신인왕 후보 이승기가 가세한 막강 공격라인이 부산의 골문을 노리고 있다.

특히 주앙파울로는 부산 파그너와의 '단신 용병'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1988년생 동갑내기인 브라질 출신의 두 선수는 각각 170cm, 163cm로 단신이지만 빠른 스피드로 무장한 광주와 부산 공격의 핵심전력이다.



광주의 특급 공격수 주앙파울로(오른쪽 두 번째)가 25일 부산을 상대로 팀의 연승 잇기에 도전한다. <광주 FC 제공>

새로운 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즌 초반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주앙파울로와 파그너는 점차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며 각각 7골과 6골을 기록하는 등 '복덩이 용병'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브라질 용병의 스피드와 골 경쟁이 광주와 부산의 26라운드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한편 25라운드 난적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던 전남은 25일 오후 3시 단천종합운동장으로 건너가 성남과의 2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승점 40점으로 5위에 랭크된 전남은 13위 성남(26점)을 상대로 6강 굳히기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태희 VS 정조국

프랑스 리그 무승부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의 남태희(발랑시엔)와 정조국(낭시)이 맞대결을 벌였으나 팀의 무승부로 승자를 가리지 못했다.

발랑시엔과 낭시는 22일 새벽(한국시간) 프랑스의 '스타드 마르셀 피코'경기장에서 열린 2011-2012 리그 17라운드 경기에서 한 골씩을 주고받아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 경기에서 발랑시엔의 남태희는 올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장해서 풀 타임을 소화했고 오세르에서 낭시로 임대되고 나서 처음으로 출전 기회를 잡은 정조국은 후반 25분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올 시즌 유럽 축구에서 처음으로 성사된 태극 전사끼리의 맞대결이었으나 두 선수는 모두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낭시는 전반 15분 무간드조의 선제골로 승기를 잡았으나 경기 종료 8분여를 남겨 놓고 코하드(발랑시엔)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무승부가 됐다.

/연합뉴스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 거저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총 17만원 ⇒ 12만원
- ▶ 만도정네비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57만원 ⇒ 45만원
- ▶ 아이나비 2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1만원 ⇒ 49만원
- ▶ 아이나비 3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5만원 ⇒ 53만원
- ▶ 트립형 매립차량용 상담후결정



매립장착모델 전자총가능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사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 2채널 8기가 35만원 ⇒ 30만원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아이나비 클리어 Real HD 블랙박스

- ▶ 1채널 4기가 19만원 ⇒ 16만원
- ▶ 2채널 8기가 38만원 ⇒ 33만원
- ▶ Real HD 1채널 8기가 28만원 ⇒ 22만원
- ▶ 파워세이프 별도 2만원

▶ 1채널=전방카메라 ▶ 2채널=전방+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13만원 ⇒ 9만원부터 ▶ 사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부터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타트버튼

추가부품(음선)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 수 있음
 ※ 차량용 고급향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 E25500 25만원
- ▶ E1 7만원
- ▶ E770B 40만원
- ▶ E7 37만원
-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 EZ620 10~14만원
- ▶ ET 17만원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루마네틱, 3M코팅, 모비스센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너,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일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둑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지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엑세서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